

작품 내용

제 목	소금과 후추 없이
내 용	번역은 나에게 소금과 후추 없이 책을 먹는 일이다. 어릴 적 읽었던 동화 『책 먹는 여우』에서 여우는 좋아하는 책에 소금과 후추를 곁들여 먹는다. 어릴 땐 가정통신문 모퉁이의 맛을 떠올리며 소금과 후추를 곁들여도 그다지 맛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좋아하는 글들을 읽다 보면 이 동화 속 여우가 종종 떠오른다. 정말 좋아하는 글은 눈으로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문장을 이로 쪼개고 씹고 삼키고 내 몸 안에서 소화시켜 먹어버리고 싶다. 어쩌면 번역이라는 건 책을 먹는 것과 가장 비슷한 일 아닐까? 단순히 말을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텍스트를 내 몸속에 내재화하고 쌓아 새로운 언어로 재탄생시키는 일. 올해 초, 한영 번역을 배울 수 있는 번역 아카데미에 지원했다. 서류 심사와 번역 시험, 면접을 거쳐 합격했다. 합격하고 들어간 첫 수업에서 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함께 배우는 사람들 상당수가 영어권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받았거나, 대학을 나왔거나, 그곳에서 일하며 살고 있거나, 아예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해외에 나가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들 능숙하게 쏟아내는 문장들 사이에서 나는 자꾸 작아졌다. 그런 사람들 틈에서 김유담 작가의 소설집 중 단편 「경자」를 영어로 번역하는 과제를 받았다. 한국어가 모국어인 나는 늘 한국어 원문에 좀 더 기대게 된다. 영어는 기댈 곳 없는 망망대해. 문장 하나에 삼십 분씩 표류하는 날도 더러 있다. 군대를 ‘army’로 옮겨야 할지 ‘military’로 옮겨야 할지, 환갑을 ‘환갑’이라 적을지 ‘60번째 생일’로 풀어 적을지 고민하고 또 고민한다. 그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에 걸려 넘어지다 보면 솔직히 많이 좌절한다. 그럴 때마다 유혹은 어김없이 찾아온다. AI 번역기를 켜면 문장은 몇 초 만에, 아마 지금의 나보다 훨씬 매끄럽게 옮겨질 것이다. 실제로 몇 번 켜보기도 했다. 결과물은 문법도 맞고 뜻도 통했다. 그런데 그 문장들을 읽어보면 이상하게 낯설었다. AI는 문장을 순식간에 옮긴다. 하지만 그건 씹는 일이라기보다는, 씹지 않고 그대로 삼켜서 통과시키는 일에 더 가까워 보인다. 소화되지 않는 것은 몸에 남지 않는다. 결국 마감이 코앞이라 유혹이 클 때에도, 나는 그 창을 닫고 다시 원문 앞으로 돌아갔다. 단어 하나를 붙잡고 고민하고, 지우고, 다시 쓰는 과정을 건너뛰면 애초에 내가 번역을 왜 배우고 싶어했는지조차 잊어버릴 것 같았다. 서툴더라도 내 손으로 옮긴 문장이어야 그 문장이 비로소 나에게 온전히 올 수 있다. 좋아하는 문장은 편하게 얻고 싶지 않다.

법을 전공하며 배운 게 있다면, 번역물도 원저작물과 별개로 2차적저작물로 보호받는다라는 사실이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 정의하는데, 실제로 AI가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물 자체는 저작물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이 개입해 고르고 다듬은 흔적이 있어야만 그 부분이 저작권을 인정받는다. 어쩌면 법이 지키려는 것도 결과로서의 문장이 아니라, 그 문장에 이르기까지 번역가가 혼자 견딘 판단의 시간일지도 모르겠다. 단어를 골랐다 지웠다 하는 그 지루하고 사소한 반복들 말이다.

나는 여전히 문장 하나 앞에서 오래 서성인다. 완벽한 번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옮긴 문장도 언젠가는 낡은 말이 되어 사라질 것을 안다. 솔직히 가끔은 AI가 나보다 훨씬 잘, 훨씬 빨리 옮긴다는 것을 알면서 굳이 이 느린 길을 계속 걷는 내가 스스로도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사회에서는 늘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을 찾으라고 배우는데, 정작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앞에서는 자꾸 느린 길을 고르게 된다. 그래도 그 더딘 시간을 좋아한다. 책 한 권을 다 옮기고 나면, 그 책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내 안 어딘가에 조금 남는다. 그리고 나를 아주 조금 바꾸어 놓는다. 아직 무엇도 증명하지 못한 아마추어이지만, 이 시간만큼은 누구에게도 넘겨주고 싶지 않다.

저작권이 지키려는 것도 결국 이런 시간이 아닐까. 누군가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들인, 눈에 보이지 않는, 씹고 삼키고 소화하는 시간. AI는 그 시간을 통째로 건너뛰게 해준다. 편리한 만큼, 소화되지 않은 채 넘어가는 것들도 늘어난다. 그럴수록 나는 여전히 서툰 내 방식대로 소금과 후추 없이 책을 먹고 싶다.